



이제 800원을 씁니다.
별트 한자 200원이 아입니다.

고수, 자화, 화랑
3주제의 하나인 화랑
외대가 수직으로

외대학보의 800쪽음도
표준, 직원, 학생의 모아진 힘으로
한사람 한사람 내밀어 왔습니다.

기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으로 사회와 화합을
일구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외대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김천열 사진부 기자

유호정 (보건소 주임)
이세원 (특임어과 02)
이창복 (특임어과 과장)

이세훈(독일어과 02)

이항(수학)영어과(수학)



! 외대... 그랜지!!

1학년 4학기 사범부교 50분수업
1분수업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학원 부속 221
일 계획되어 있다

다음을 준비수업
있도록 한다

제각각의 의견
가를 사라는
공대학이 이
공대학자들
이로 우리대학
국가적 요청에
는 정을 출
해 출장을 지
모란 제도를
사이전전에
이제까지보다
민중가해 줄
공대학으로

50분수업제단행

졸업식 2월28일 오후2시

11일 교무처장 박국익을 초청하여 50분수업제도를 소개하고, 12개과 증설로 모두 15개과
가가진교로변제제에서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과로 늘어나는 점까지

▶ 50분수업제단행
현재 한 교시 강의시간은 50분이다. 50분 수업에 익숙한 우리 배운 그 시간조차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원래 강의시간이 100분이었더라면?
학교설립 당시(1954년)의 수업 시간은 100분 수업제였다. 그러던 것이 66년 50분 수업으로 단축되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66년 1월 21일자로 나온 101호 학보에는 "교과과정에서 있어 중점에 100분 수업을 50분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100분을 계속 앉아 있음으로 지루한 감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다. 50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강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라 언급하고 있다.

학장 기자 회견

금년부터 유급제도 실시

실시대상은 1학년부터

학구적 분위기 조성 힘쓸터

○ —대학원 신학년도 학장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4시 박관실에서 치재함— ○

▶ 금년부터 유급제도 실시
고등학교 시절 성격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내려졌던 유급이 대학에도 존재했다. 71년 3월 30일자로 발행된 151호에는 "학구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유급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유급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이화여대등 5개 대학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지금은 학회에서 사라진 유급제도가 당시에 학구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

회칙통과로 올해 11월선거부터 분리실시

9월1일 (월) 용인캠퍼스 학
내총학생회에서 「학생회회칙
제11호」가 통과되어부터
가에서 실시되는 총학생
회칙에 따른 권력이 분
서울·용인캠퍼스
교내총학생회에서 사제직
교내 제4회 총학생회선거
2월 28일 (토) 오전12시
의지해 실시된 바있다

5월 7일 서울캠퍼스 학내총
회에서 통과된 바있다.
왕의실, 김사준씨
정면회입식 가져
기하로형제 왕의실 기하로
을 유무와 인사준비가 지

9월 4회 학기관리이
9월총회 (월), 9월 (화) 9
월간 오두수리 학내총회
가에서 열렸다.
이런 왕의실 제내시
입스 (Thomson Williams)와
「외대학보」라는 이름의 전

▶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
현재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분리되어있다. 하지만 과거 용인배움터가 생긴 뒤 외대 총학생회장은 서울과 용인 배움터 학생의 공동투표로 당선된 한명이 두 배움터를 대표하였다. 이후 88년 9월 2일 용인배움터 확대운영 회의에서 서울·용인 총학생회 분리가 결정되어 지금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88년 9월 6일자로 나온 497호에 따르면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총학생회선거부터 서울·용인 캠퍼스가 분리 실시된다"라고 적혀있다.

학보로 타고 과거 로!

! 외대학보 제호 변천사

外大學報

(제 10호)

1959년 10월 22일(창간호)~1957년 12월 20일(12호)

외대 학보

제1호(1959년 10월 22일)~제15호(1959년 4월 20일)

외대학보

제16호(1959년 5월 20일)~제25호(1959년 5월 20일)

! 우리학교에 이런 일이!!

학생회관 4층 전소

파인조각상,제사용어보 보류후 결정

1987년 8월 28일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층이 전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4층 37개의 방중 33개방이 피해를 입었다. 4층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30여명의 학생들은 소방사다리 타고 탈출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당시 학보는 이 사건을 1면에 크게 보도하고 있다. 본보는 당시상황을 "오후 1시 55분 학생회관 4층에서 '붕'하는 폭발음과 함께 삼시간에 불길만 번졌다... (중략)... 학생회관 총 건물 천막이랑중 4층의 30여명방이 전소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기자 5명 본교 방문

총학·임수경후원사업회 물러 임대표·통일관련 취재 총학, 임대표의심 및 평양의대와 지체될런 듯 전달

1991년 12월 12일 '노동신문' 리경성 기자등 북한기자 5명이 우리학교를 방문하였다. 남북 교류금 3차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온 그들은 총학생회와 임수경후원사업회에 들러 통일관련 취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학보에 따르면 "오후 2시50분경 중앙택시를 타고 임대표의 모교인 본교에 도착... 2시간여동안 학내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 학생회관 4층 전소
1987년 8월 28일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층이 전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4층 37개의 방중 33개방이 피해를 입었다. 4층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30여명의 학생들은 소방사다리 타고 탈출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당시 학보는 이 사건을 1면에 크게 보도하고 있다. 본보는 당시상황을 "오후 1시 55분 학생회관 4층에서 '붕'하는 폭발음과 함께 삼시간에 불길만 번졌다... (중략)... 학생회관 총 건물 천막이랑중 4층의 30여명방이 전소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 북한기자 5명 본교 방문
1991년 12월 12일 '노동신문' 리경성 기자등 북한기자 5명이 우리학교를 방문하였다. 남북 교류금 3차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온 그들은 총학생회와 임수경후원사업회에 들러 통일관련 취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학보에 따르면 "오후 2시50분경 중앙택시를 타고 임대표의 모교인 본교에 도착... 2시간여동안 학내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포스코의 새로운 이는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젊은 청년, 장년층, 생애주기
의에 달린 새로운 이는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젊은 청년, 장년층, 생애주기
의에 달린 새로운 이는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젊은 청년, 장년층, 생애주기

19,000명의 일터차 신입사원

포스코의 1년차 신입사원은 19,000명입니다
77년 입사한 오병진 부장도, 3차 입사한 김지혜씨도
포스코에서는 모두가 입사동기입니다
그 이유는 32년간 세계 철강산업에 이끌어온
포스코가 민영 기업이 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이요
이제, 민영 포스코 19,000명의 입사동기가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난 32년간 쌓아온 포스코의 명성을
민영 포스코로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는 누구 한 사람의 기일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자나 선호하는
포스코는 특정 대우가 있어서는 누구나 포스코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포스코의 카피로써가 아니라 경영철학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꾸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지)철 강경영철학으로 오늘날이고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800 특집

난 예전의 과방이 아니다!

양 배움터 과방꾸미기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본보와 양배움터 총학생회가 무너지는 과방을 살리고 새내기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동 주최했으며 모든 과방을 대상으로 했다.

과방에 대한 평가는 지난 8월(금)에 있었으며 심사는 각 배움터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

회장, 외대하보 기자 2명이 함께 했다. 심사기준은 도색 5점, 정결 10점, 과방성화 10점, 편의성 10점, 참신성 20점, 새내기 참여비를 20점, 새내기에 대한 배려 20점, 기타 5점으로 100점 만점이며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하여 선정했다. 상은 노력상과 참신상 두개로 배웠으며 특별 각 2개과를 선정해 15만원 상당의 과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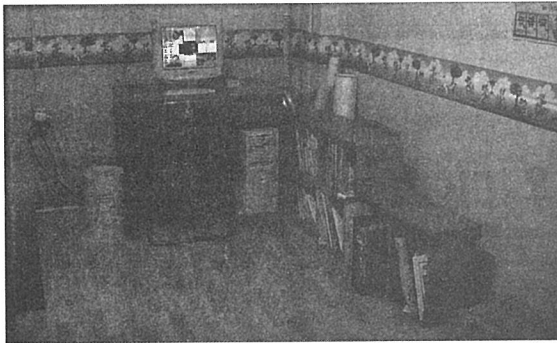
필요한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참신상은 불어교육과, 노력상은 중국어과가 수상했고 용인배움터의 경우 이태리어과가 참신상을, 미인어과가 노력상을 수상했다.

이번 과방꾸미기 대회는 본보가 총학생회측에 방을 제안한 것으로 단대까지는 전달이

됐으나 파까지의 재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많은 과가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용인배움터의 독일어과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3위에 머물러 총학생회측에서 '너한께 상'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불어교육과 - 참신상 용인 이태리어과 - 참신상
중국어과 - 노력상 미인어과 - 노력상



불어교육과 학생회장 이나영(99)양을 만나



을 끌었던 불어 교육과가 이번 과방꾸미기 대회에서 서울배움터 참신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소감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내기와 함께 하는 과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결속력이 좋아질 것 같다.

용인

과의 독특한 분위기 살려

미인어과 학생회장 김상열(97)군을 만나



미인어과는 행사공고에 늦게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인도는 기간동안 과방을 꾸미는 데에 성공했다. 또 과방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한 것에 대해 의미를 제기하는 등 과방꾸미기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는 작은 과방에 스무명이 넘는 새내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과방장은 미인어과 전통복장과 전통악기 등으로 꾸민 과방을 구석구석 자세히 소개해주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노력상 수상소감
새내기와 함께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였는데, 수상하게 되어 과방장으로서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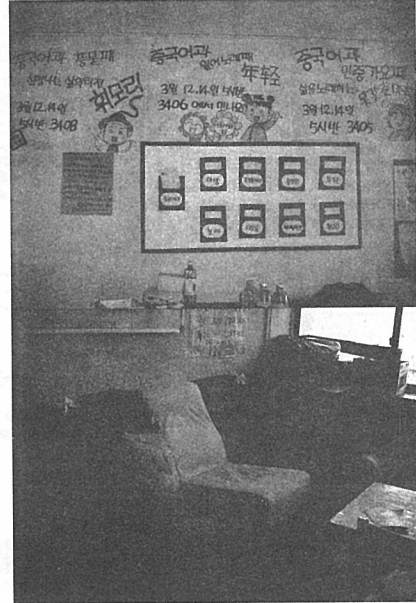
과방 꾸미기 과정은
과방꾸미기행사를 화요일날 전달받은 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날 남학생들이 도색을 하고 양쪽 벽과 창문을 분담해 새내기들이 아이들을 내고 이틀동안 밤 9시까지 꾸미었다.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는
새터에 갔다왔지만 여전히 어색한 친구군에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홍보가 마중했던 점이 아쉽다.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것은 없고 재미있었다. 물품을 사러 학교 밖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과방 꾸미기 과정의 목표
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달 또는 두달에 한 번씩 사회에 진출해 있는 선배에게 인생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같이 과방꾸미기를 준비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처음에는 행사인데 믿고 잘 따라줘서 고맙고 상도 받게 되어서 뿌듯하다. 새내기들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미인어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참신하고
아늑해
:

중국어과 회장 유하나(97)양을 만나



선정과정에서 불어과의 경합을 받았다. 하지만 불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선했다는 평을 받아 중국어과가 노력상에 선정되었다. 벽에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학회홍보와 편의함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다른 과보다 넓은 과방이 잘 정돈되어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소감은?
사실 의외였다. 특별히 무엇을 꾸미기 보단 청소에 주력했다.

꾸미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우선 학생회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벽에 패턴타일을 다시 하고 청소를 해 깨끗하고 와서 있고 싶은 과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과방을 이용할 새내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과방이니 내 것처럼 생각했으면 한다. 술 먹고 어지러지 말고, 하얀자 자주 찾아오면 된다.

이후 과방정리 계획은?
3월, 학기초에는 새내기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과방은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씩 과방이 북적거리는 한해를 만들고 싶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넓은 공간 활용도 높아~

이태리어과 학생회장 이상윤(97)군을 만나



내기들을 위한 날씨가 되지 않는 세심함을 보였다.

참신상 수상소감
새내기들과 미학반들 모두 너무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다.

과방 꾸미기 과정은
방학중인 2월 20일 경부터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 회의하고 준비했다. 합인미트를 찾아다니며 블라인드를 구입했고 도배지도 사서 직접 도배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거의 항상 막혀서 타고 다녔다.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는
상을 쥐서 고맙고, 홍보가 많이 되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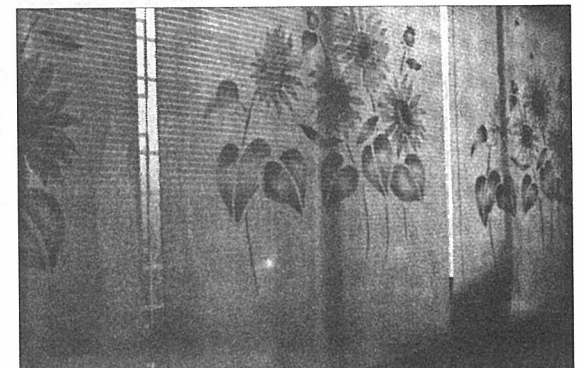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입학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내기가 5명이 참여했고 미학반들도 10명 넘게 참여하는 등 다들 열심히 해줘

서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다.

과방 꾸미기 과정의 목표
교수님과 학생들의 만남을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같이 과방꾸미기를 준비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각자가 알아서 너무 열심히 잘 해 줘서 고맙고 수고 많았다.

김민경 기자 miksophia@hanmail.net



800 특집

‘균형’의 사회를 위한 물음, “왜?”



홍세화는 누구?

1947년 서울 출생.
1969년 서울대 문리대학 외교학과 입학.
1977~79년 민주주의 '남민전' 조직에 가담.
1979년 3월 남민전 사건으로 해리당 정학.
1982년 이후 광관대, 해리문전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활동.
1989년 '나는 해리의 해리문전사' 발간.
1997년 '르 몽드'에 실린 기사(유명인) (진보)는 죽은 사신(인)기 반역.
1999년 '해리문전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발간.
2000년 단행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격월간 '아름다운 나라' 발간.
2002년 1월 16일 영구 귀국.

남민전 사건이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은 1979년 총재 이재문(사건 당시 45세·81년 11월 옥사)을 비롯해 교수, 교사, 작가, 조교, 회사원, 재야운동가 등 74명이 검거되고 4명이 수배된 대규모 공안사건이었다. 정부는 ‘북적으로 정부 진복을 노린 최대규모 자생적 공산주의 조직 격발’ (1차 발표), ‘북괴와 관련된 무장간첩단’ (2차 발표)이라고 발표했지만 재야에서는 이를 유신정권의 상황에서 공안당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해대의 사상범’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사범의 각별한 관심과 식방운동 등 국제적인 주목을 모은 사건’이었다. 옥사한 총재 이재문 외에 김옥에서 얻은 병으로 병사한 경우(전수진·여·사건 62세)와 사형 당한 경우(신창식·당시 45세)가 있으며 94년 병사한 김남수 사인도 이 사건으로 79년에 김옥이 가 88년 12월 말 마지막으로 불려난 사람 중 하나였다.

공약에서 내려지자 뛰기 시작했다. 4월(월) 오후 2시 20분, 이미 약속시간에서 20분이 지나있었다. 한겨레신문사가 아니라고 묻는 기자에게 사람들은 알뜰을 가리켰고 그 쪽으로 뛰어다니지 10분이 지나 도착한 한겨레신문사 건물은 붉은 색의 독특한 외양으로 하나의 전무후무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요새에서 투사하는 전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환한 웃음을 지닌 50대 중반의 남자 한 명이 기자를 맞이했다. 홍세화 한겨레 편집국 기워워(55).

“이회창 이 사람, 교양한 사람이야. 양심은 무슨 양심” 신문사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가 마실 것을 주문하고 있는 사이, 기자가 준 외대화보 799호에 실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인터뷰 기사 중 ‘민족회복 조공수 사정 사형은 양심에 맞지 않음’이라는 대목을 보고 홍 위원이 말했다. “참 뻔뻔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뻔뻔한 것을 용인하는 게 더 큰 문제” 그는 지난 1월 16일, 남민전 사건으로 망명자가 된 이후 23년만에 영구 귀국해 한겨레에 입사, ‘해리문전’이란 토론회를 맡고 있다. 화요일에 목요일에 나오는 ‘해리문전’을 위해 취재당일도 출퇴근을 바꾼 기사가 있었다. 그는 이번 ‘해리문전’ (3월 5일자)에는 재민과 과당의 정당성을 주장한

철도노조의 굴에 대응하는 철도조직 직원들의 빈틈이 실린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이 한국사민사회의 토론지대로 작용한 것이지, 한겨레의 실재적 주인은 한국의 시민사회 아니겠어요. 신문,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신문은 어떤 사안에 대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은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요. 나는 한겨레신문과 한국사민사회의 다지역활을 하는 셈이지.”

정경직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겨레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비판자들에게 목소리를 제정한다는 측면도 있고... 한겨레의 기본적 편집방향보다 특을 넣는 것이 편집방향과 전혀 다른 글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첫째, 글로 쓰고 둘째, 논리성이 있고 셋째, 합리성이 갖추어진다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글에는 반론과 비판이 가능해서 사자를 두고 ‘질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홍 위원은 현재 ‘해리문전’에 글을 많이 올리오지만 내용에 비해 글쓰기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글이 많다고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비판했다. ‘해리문전’은 토론이다. 자연스럽게 된 의문 하나.

한국사회의 토론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일단 부정적 해오. 그러니까 억지까지 나오고 우기고... 합리성으로 경정할 줄 모르는 거지. 기성언론은 지금까지 자기와 다른 의견을 한번도 실은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틀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토론회의 부재에 한국사회의 교육과정이 어떤 영향을 큰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요. 프랑수아즈 아기가 얼마 아까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왜’인데 우리나라에선 ‘무엇’과 ‘왜’라는 질문을 묵살해버린다고. 학교에서는 주입식교육으로 ‘왜’를 살리기가 불가능하고, 군대나 사회에서도 어렵잖아. ‘왜’라는 질문이 없으니 결국 힘의 논리가 관철되죠.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도 힘으로 눌러버린다고.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비판과 제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토론문화인데 그것이 없어진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말이지.”

홍 위원은 토론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왜’라는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것부터 주입식교육을 토론식으로 바꾸는 등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번 과당 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신문들 ‘한겨레’ 외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에서 ‘리조기’로 불리는 수구보수언론. 그 의견을 들기 위해 반쪽을 올리기가 시작됐다.

최근 3·1절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비지원’ 전일과 청년 발표와 관련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해리문전을 쓴데요.

“뻔뻔한 거지. 여기에서도 ‘발행부수’로 표현되는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지금 민족지간 얘기는 속 들어갔잖아? 배,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깨지지 못 한 것을 단계적으로 이용한다고. 지금은 ‘옛날 얘기를 지금해서 무슨 필요가 있나’ 이래위로 얘기하는데, 생각해봐. 사회적 관계도 잘못된 쪽이 사회에서 사람이 이어지는데 공익을 표방하는 신문은 어떻게? 전일과 독재천왕의 중

“조선일보 반대운동은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

거가 다 있는데 일언반구 없이 오만하게... 그러니까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거야. 그나마 중앙일보도 합리적 보수의 가능성이 있는데 동아일보는 점점 더 추해지고 있고 조선일보의 경우 부시관련기만만 보도 할 수 있듯이 자국 반민족적인 거지. 그리고 이런 강등적세금에다 실적 사태를 다른 조선일보만 편에서 볼 수 있듯이 노하루가 쌓여있어. 대중을 아주 낮은 단계에 놓고 보아만 그런 만능을 그럴 수 있다고. 정말 악독한 신문이지. 세상이 신문사가 호통하는 데가 어디 있나?”

신랄하다 싶을 만큼 격렬하다. 그는 ‘왜’ 인터뷰어가 아닌 인터뷰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별된 더 악독하니까’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점점 얘기는 조선일보로 중심을 잡아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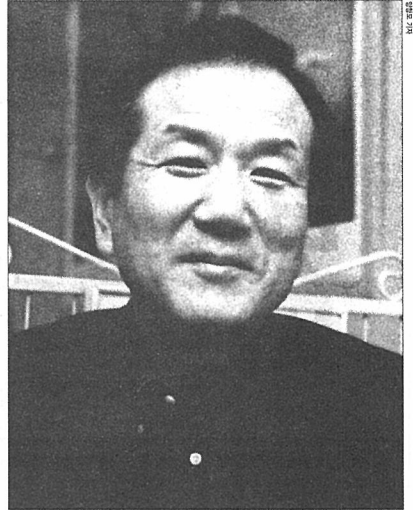
조선일보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조선일보의 반민주적·반민족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사람이 깨어면, 자신을 민주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그 신문을 본다는 것은 그 신문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위를 용인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 신문을 안 봐야 해. 조선일보가 힘이 많은 것은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이지가 거스의 벽을 하나하나 허물아내듯이 한사람 한사람을 설득해서 빼내야 한다고. 그게 바로 민주화운동이야.”

그는 최근 한겨레에 입사하면서 ‘한겨레는 사그러들 수 없는 희망이야’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겨레가 과연 희망일까?

최근 저면에 전무후무하고 싶고 한겨레 통일문화에 정주정거가 재정의는 등 한겨레의 행보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겨레가 해리문전이 자본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겨레는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중들로서 자신을 표현하려면 일단 살아야한다고. 그런 고민을 잊지 못하는 자식인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한겨레를 안 봐요. 그런데 해리문전은 ‘그러니까’ 하고 본다고. 기존에 다른거야. 이중기준이지.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해요. 자기 목소리 내다가 며칠만에 사라지잖아.”



간가? 그런 사람들에게 ‘한겨레신문’ 없는 한국사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겨레가 생존을 위해 엄청난 고민을 한다는 것, 꼭 알아주었으면 해요.”

한국사회에서 가장 정보적인 한겨레신문. 한겨레의 주요 구독층인 젊은 세대들을 홍 위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이집대가 점점 보수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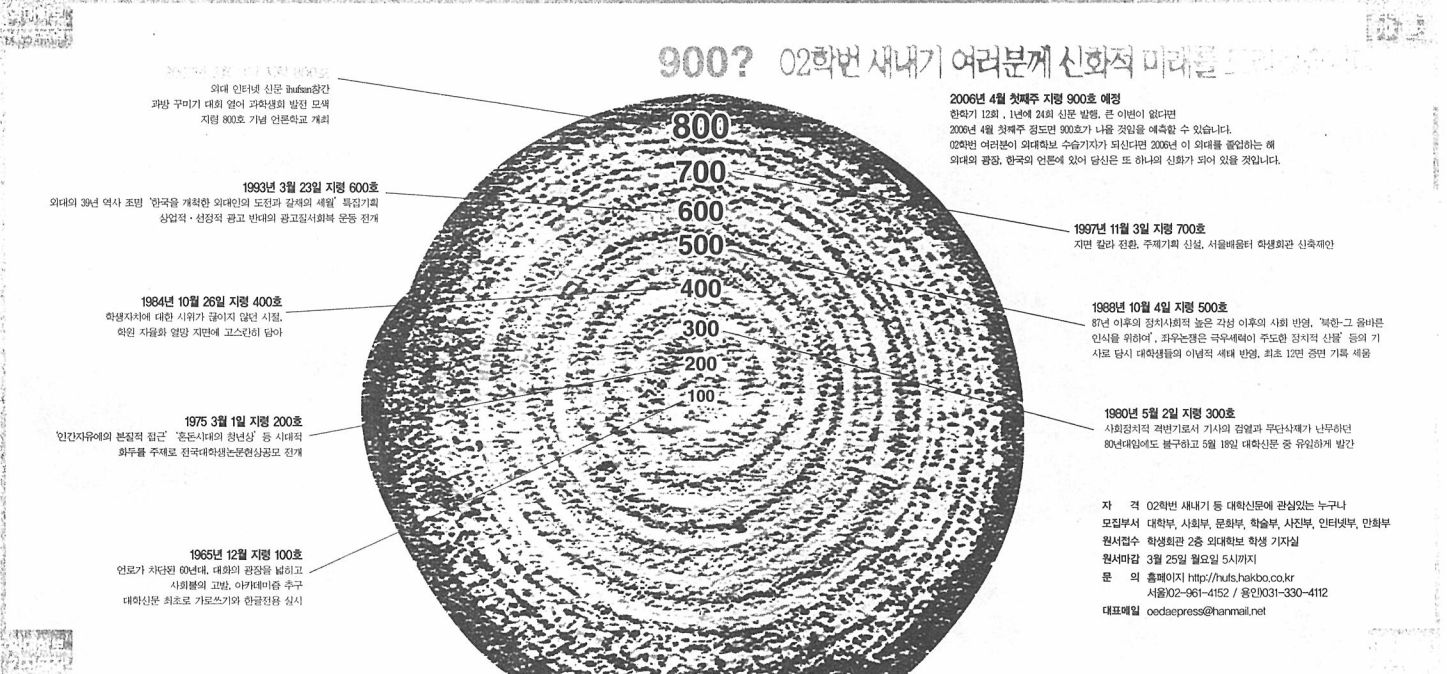
“한국에선 신문에 사회, 역사, 철학에 대한 공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집대에 처음 이념을 접하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우경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집대들이) 그런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기 이집대에 보수화됐다고 떠벌어대는 보수언론들은 비판받아야 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결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가? 단 1~2%의 엘리트층을 위해 나머지 98%를 박수부대로 만들며... 광란이지, 광란.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 변혁이 필요해” 자신의 시대, 변혁이 절실한 한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대에 이렇게 요구되는 대학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정해야해요. 진정(眞正)은 말 그대로 좋아함과 싫어함의 균형상태를 뜻하죠. 진정은 곧 균형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 자아실현과 생존과의 균형을 꾸준히 해야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폐가 100% 진보가 아니면 0%로 간다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거죠. 물적 토대를 전부 기득권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100% 자아실현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런데 100% 자아실현을 못했 경우 모두가 진보쪽에 100% 안 간다고 침산을 해버려. 극단적인 논리를 버리고 미러부터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룰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안창모 기자
hufshan@hannam.net

“이상·현실 사이, 자아실현·생존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봄



‘봄’의 모든 것을 ‘봄’

봄꽃

△개나리: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나리는 서귀포에서 3월18일(평년)경에 꽃망울을 터뜨린 뒤 남부 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으로 올라온다. 개나리가 필으로써 봄이 왔다 할 수 있다. 한 방에서 쓰는 연꽃은 개나리 종류의 열매를 말린 것인데, 한약(藥)·발효·화농성질환·림프선염·소변불리·종기·신장염·습진 등에 처방된다.

△진달래: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한다. 진달래는 평년(3월24일)서귀포에 상륙해 남부, 중부로 올라오며 봄을 알린다. 한방에서는 꽃을 연상수(連心草)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해수·기관지염·감기로 인한 두통에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도 있다.

봄나물

봄나물은 맛도 신선하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고 간을 자극해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몸을 보호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

△달래: 칼슘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는 봄나물. 특히 비타민 C가 많아 미음에도 좋고 민달래와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냉이: 건강과 소화기능을 도와준다.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풀어가 간에 들어가게 하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다.

△복: 봄나물 가운데 가장 다량하게 먹을 수 있다. 무기질은 물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체내의 저항력을 길러주고 감기에 예방과

알려진 개구리가 가진 겨울잠을 깨고 깨어난다는 상징이 있다. 그렇다 이로서 우리 곁에 봄이 왔다.

이제 두꺼운 겨울옷 벗고 조금 망설임이 있지만 이 옷샘으로도 봄이 오는 신호일 뿐 큰 괴리를 느낄 것이다.

봄은 좋은 겨울잠을 깨고 온갖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다. 하지만 개구리만 부리 새싹들이라는 대량생물을 불러오는 시작의 계절이다. 이렇듯 봄은 온화하고 따뜻한 봄을 뜻한다. 하지만 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생각할 수 있는 명쾌한 규정이 없는 것도 어쩌면 봄의 모습을 규정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봄을 알면서 그 모습을 생생히 내면 속에 알기 때문이다. 이제 봄의 모습을 통해 조금이나마 봄을 구경시켜 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어떨까?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

봄의 예찬

△합창적인 찬양은 "봄을 기다리는 세월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세월은 실상은 자는 것"이라 했고 "그날 자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꿈을 '꿈틀거림'으로 풀었다.

△라틴어에는 '봄꽃을 세우고 하다'(vere nuncare flum.)라는 말이 있다. 즉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라는 뜻의 속담이다. 그만큼 봄엔 열매가 많이 핀다는 뜻이다.

△아일랜드의 수필 신록에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글에서는 "해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해택을 가장 아름답게 내내리는 것은 봄. 봄 가운데 만산(萬山)에 녹엽(綠葉)이 싹트는 이 때 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먼 산을 바라보다. 어련하든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뭇가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뭇가 새로운 경이(驚異)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라며 봄을 찬미하고 있다.

봄의 절기

△입춘(立春): 입춘 2월 4일경. 태양이 황경 315°에 왔을 때를 입춘 입기일로 하여 이후 약 15일간을 입춘이라 한다. 음력으로로는 정월의 절기인 동양에서는 이 날부터 봄이라고는 하지만 추위는 아직도 강하다.

입춘 전날은 절분(二分)인데 이것은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몸을 땀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춘을 마지막 연초(年初)처럼 본다.

△경칩(驚蟄): 경칩은 글자 그대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할 무렵이다.

일상적 용법으로 경칩은 3월 5~6일경의 의미이지만, 정확하게는 이 날부터 춘분(3월 21일)까지의 절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경칩에 개구리를 먹는 풍속이 있었다.

또 흙일을 하면 뒤뜰이 없다 차 벼를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다. 경칩에 벼를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는 설도 있어 이날을 골라 흙 벼를 바르는 집도 있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음악 속에 묻어나는 따스한 '봄'

클래식 속 봄



봄을 표현한 클래식이라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비발디의 '사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향곡이라야 하나 다양한 아름다운 모교 시는 곡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 우선 몇 곡 적어보겠습니다.

계절이 쓰인 교향곡은 차이콥스키의 '사

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비발디 '사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중 '봄'의 3악장에서는 '스피아조에서' '봄이 왔다. 새는 즐거운 소리로 봄을 맞고 새들은 산들바람에 유혹되어 들을 흐르는 소리를 달콤하게 낸다. 먹구름과 번개가 하늘을 달리고 뇌성이 봄이 왔다 알리고 폭풍이 맞고 새들이 다시 상쾌하게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며 봄의 모습을 '산들바람'과 '뇌성' 두가지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악곡에서는 '꽃에 파묻힌 화창한 목장에는 나무들의 푸른 잎이 정답게 속삭이고 개 짖는 연소 치기가 잠들다'라며 부드러운 봄의 햇볕에 포근하다 못해 노곤한 모습으로 봄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 △악곡에서는 '넉 프와 목동들은 화려하게 빛나는 봄의 햇볕을 쬬며 전원의 피리소리에 맞추어서 춤춘다'라고 봄을 맞은 지상의 기쁨을 묘사했다.

비발디의 '사계'에서 봄의 모습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박준선

(마스터피스 회장, 신임정보 이)

새로운 시작과 설렘, 희망의 계절

영화 속 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 장춘, 사랑, 황금기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봄은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첫사랑을 따라 같은 대학에 갓입학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그린 '4월 이야기' (1998, 이완이 감독)에서의 봄은 새로운 시작과 설렘으로 그려진다.

주인공 우정우에게 봄은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상인으로 독립된 첫 삶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남몰래 감춰왔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남자와 희망이 충만한 계절이다.

계기가 일본의 4월은 대학의 신학기나 시작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별다른 바 없는 입시지옥을 거친 신입생들에게는 신비와 기대감으로 충만한 일생일대의 변화기일 것이다.

또다른 영화, 시몬즈 엔지니어 상우와 라디오 방송국 PD정미 은수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봄날은 간다' (2001, 김진호)에서의 봄, 봄날은 사랑의 시작과 종관 끝, 그리고 나만의 삶과 불꽃 같은 순간을 나타낸다.

처음에 걸린 상우의 할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봄날'이 있고, 상우의 봄날은 그렇게 사랑하고 잊혀진다.

연애하는 동안은 봄날이다.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나도 또 어찌한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면 봄날은 간다. 라는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영화이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의 봄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

꽃샘추위로 움츠러든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영화의 참리로 잠시 옮겨주는 것은 아닐까?

서현희

(외대 시네마테크 회장, 봄이 9)

이런 글도 읽으세요

한 문예지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글을 받습니다.
E-mail : oad@press@korea.net
전화 : 02-951-4122 (03)330-4112

외대학보

LG IBM



LG IBM 인터넷 쇼핑몰
http://shop.lgibm.co.kr

2002년 2월 20(일) ~ 3월 31(일) ThinkPad Academy Sale

대학생인데 아무 노트북이나 쓸 순 없잖아?
그래서 난, 이번 행사를 놓치지 않았다!
쏟아지는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ThinkPad Academy Sale, 편리한 주변장치도, 무상 2년 서비스도 통째로 받았다!
이제, 난 정말 노트북다운 노트북을 쓰게 됐다!

- ▶ X22 기판형 (2660CBK-A1) 50MB 인터넷 전용 모뎀 800MHz-M, 128MB, 30GB HDD, 풀트랙터 (8041H80), 24X CD-ROM (950233), 기판 (TP848 30X)
 - ▶ X22 무선형 (2660CBK-A2) 기판형 + Cisco Wireless Lan Kit
- ※ 미국 PC매거진 선정 2001년 'Best Notebook' - ThinkPad X22

a better e-xperience
ThinkPad
IBM (®)은 IBM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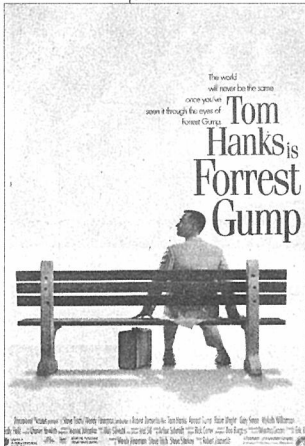
▲ LG IBM PC는 Intel Microsoft "Windows"를 지원합니다.
http://www.microsoft.com/pcanyhow/whatsnew/Intel_Intel_Inside_Pentium은 미국과 그의 국가에 소재한 인텔사와 자체사의 상표 혹은 등록상표입니다.



시대별 4단만화(2)
1989년 4월 5일자 (40호)

영화로 세상 읽기 (1) - 첫출발 : 영화읽기

영화 읽기의 지름길 ... 일상 뒤집어 보기



영화는 오락적인 예술이지만 또한 '지적인' 오락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화'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냥 즐기는 기분으로만 영화를 대할 수 없다. 영화는 세계의 반영이다. 정치, 사회, 문화를 읽는데 '영화'를 매개로 신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영화속에 담긴 몇 가지 함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자. 다음 국제면부터는 '영화로 세상읽기' 시리즈가 국가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편집자

몇 년 사이 우리는 '영화'와 관련된 수많은 담론들을 접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수업을 통해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외대는 그 특성상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학, 문화를 공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학보다 외국어의 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것은 영화가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작·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효과적인 교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영화가 생산·소비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영화는 효과적인 학습 교재

대부분의 영화는(일부 아방가르드 영화나 독립영화,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는 예외적인) 생산과 소비라는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해답이 담겨져 있다.

영화는 예술과 상품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할리우드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제작·상영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상업적 측면이 주요 관심사 되고 있다. 상업적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객의 기호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관객의 가장

공동적인 본능을 찾아내는 작업이며, 이는 익숙한 주제와 형식을 통해서 제작, 상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영화를 보든 그 영화가 생산·소비되는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는 상품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이데올로기 통제기제로서 작동되며, 지배적인 제도와 가치들을 정당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제상의 관습과 형식상의 관습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영웅적이고 남성적인 모험, 낭만의 추구, 여성적인 멜로드라마, 구원을 위한 폭력, 인종주의 스테레오 타입의 묘사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현실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서술구조, 이미지의 연속성, 카메라의 시선, 등장인물의 고정된 정체성, 중심화면 등의 범의 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기록인 듯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상품과 예술, 이데올로기 통제기능

및 편의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친구'를 보면 오늘날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폭영화의 성공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 즉 인간에 대한 신뢰상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돈이 사람들의 관계적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힘든 세상에서 잠시 위안을 찾는 관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박하사탕'은 한 인간의 자살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역사에 대한 의식을 건드려주고 있다. 이 역시 386으로 대변되는 청장년 세대의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죄의식과 부채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포레스트 겔프'를 통해 미국인들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읽을 수도 있다. 즉 흑백인종문제,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워터게이트, 케네디 암살 등 미국의 치욕을 가깝게 건드려서 이런 사건들을 마치 자기만의 에피소드로 느끼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의 상처를 볼 수 있다.

'미안한 사랑' 구하기? 미국은, 한 사람의 생애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현재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들은 인간존엄의 근본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그냥 즐기면 된다?

영화? 그냥 즐기면 되지, 뭐가 그리 복잡

하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인물들의 연기, 화면배의 구성 등이 잔뜩 무뎠던 영화관 밖의 현실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느 특정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보다 풍요롭게 영화를 관람해야 하지 않을까?

영화를 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왜 저 인물은 저렇게 행동하지? 다르게 행동하면 안될까?' 만일 영화 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물이 있다면 '정말 저 인물이 아닐까?' 그 반대일수도 있지 않을까?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정말 좋은 것일까?' 등등 ...

아마도 질문을 던지면 영화를 본다면 보다 나은 측면을 보게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영화가 '생산·소비된 사회'와 '영화 속의 사회'에 대해서 알고 본다면 영화의 실재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화이다.

우리는 영화처럼 살 수 없다. 단지 영화를 소비하는 일상의 시간과 노력에 걸맞게 영화를 보는 눈을 키워주지 않을까?

정현두

(해체대 강사, 러시아 문학)

콜로키움(1) - 러시아의 이해

통치의 두 축 - 중앙집권과 집단주의



기연수 교수(러시아학)

다"라고. 이는 러시아가 시공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정통문화적 가치와 전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러시아의 광대한 자연을 잠식만이라도 점령해보면 이 나라에서는 '무엇인가'만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체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광활하고 때로는 가혹하며 외경스러운 자연환경 속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기보다는 이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사실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외침이라는 역사적 수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

지만, 러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지고자 했던 집단주의는 그들의 특정적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유별난 것이었다. 러시아인에게 있어서 '비트'는 곧 '별'로써 삶을 얻기 위한 그들의 '공동체'라는 집단'이다. 이들 자신에게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계' 그 자체이고 '우주'이다.

이처럼 유별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처음부터 강한 집단주의적 의식 속에서 살았고, 여기에 러시아 정교회와 기독교적 공동주의가 수용되어 공동체 내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평등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절대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중앙집권주의)에 의해서만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들 러시아 민족은 '비트'와 더불어 그

들의 역사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베체(watch)라는 민회의 민정자치제를 통한 통치권력의 가부장적 중앙집권주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러시아 정치·사회·문화의 전통적 핵심요소는 이러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와 민정자치제적 중앙집권주의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요소들 러시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역사적으로 줄곧 인정해왔다는 사실이며, 재경 러시아의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에 와서는 최고 권력자들에 집단주의와 중앙집권주의에 익숙한 신민과 인민들의 목숨과 동의어에 이 두 요소를 최대한 이용하여 국가를 통제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행한 통치권력은 제정 러시아에서는 전제주의적 성격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전제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러시아 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집단주의와 중앙집권주의의 국가와 위기를 극복해나갔고 또한 국가를 새롭게 개척·발전시키기도 한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힘의 주요한 근원이었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왔느냐,



이한이 부에 한민 줄은 생긴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이지만 인사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생겼다. 이 곳 토론토는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서인지, 인사할 때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서로에게 묻게 된다. 여기에 온 후부터는 내 이름 곁에는 그렇게 내 나라 이름인 'korea', '한국'이 나란히 붙게 되었다. 이름을 묻고 출신국가 등을 주고 고백함으로써 어색한 인사가 끝날법하지만, 내에게는 특별하게도 또 하나의 질문이 되풀이된다. 그 곁에는 한국의 이름이 되풀이된다. 그 곁에는 한국의 이름이 되풀이된다. 그 곁에는 한국의 이름이 되풀이된다.

'남인가, 북인가'

새로운

아닌 북쪽에 왔느냐는 것이다.

처음 이 질문을 받고는 말처럼 머리를 맞춘 것 같이 망해져서 한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인가, 북인가'를 말해야하는 그 짧은 순간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 잠시 후 아무 말도 없이 'south'라고, 아마 'north'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느낌을 또 한번 받았다. 가족에게 잘 지킨다는 인부편지를 쓰고서는 편지 봉투에 집 주소만을 써넣었는데 'KOREA'로 적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일러본 북으로 편지가 갈지도 모른다고 하며 아닌 일조를 놓으려서 'South Korea'라고 다시 고쳐주었다. 그 봉투 위에 적힌 우리 집 주소를 물어다주고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던...

통인원 칼럼 - 캐나다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단지 길라잡이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면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편지도 가슴 아팠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래의 조국의 현실을 이처럼 생생히 느끼고, 나와 직접 연관된 문제로 느끼는 날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자연스레 "통일해야지"라고 소리만 내었던 나였던 것 같다.

한인 편집부에서 'KOREA'라고만 써도 틀렸다고 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누가 묻거든 '남과 북'이 앞마리에 붙지 않는 '통일 된' 한국에서 왔다고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곳 캐나다에서 통일된 'KOREA'가 내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이민자들,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윤홍은

(동학·이름이 뭐)

대한민국 인터넷 통신

DA·COM

www.dacom.net

MON

TUE

WED

THU

FRI

SAT

SUN

난, 주말에 마음껏 쏜다!

002 주말전화 WeekendFree

월 2만원으로 주말 최대 120분까지 마음껏 통화한다

1그룹 (미국/일본/캐나다 - 120분)
2그룹 (호주/필/뉴질랜드/중국 - 60분)

- ▶ 가입신청시 희망국가그룹 선택
- ▶ 월기본료: 2만원 (2개 그룹 신청시 4만원)
- ▶ 유선전화, 휴대전화, 국제전화 모두 이용 가능
- ▶ 1,2그룹 이외의 국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 이용시 일반 국제전화 요금 적용

(금액단위: 원)

	002 주말전화	00700 월간시간대금	비 고
미 국	20,000	34,560	
일 본	20,000	46,800	120분 이용기준
캐나다	20,000	64,800	
호주 / 뉴질랜드	20,000	28,800	
필 / 중국	20,000	42,120	60분 이용기준

※ 가입 및 기타 주말전화에 대한 상세한 문서는 고객센터(082-100) 및 www.telecity.co.kr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전화는 002 746700082-100
www.telecity.co.kr

초고속인터넷의 천하명품 데이콤 보라홈넷
www.borahome.net 가입문의: 1544-0007



"엄담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여성을 만들어 낸다.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성역할을 구분 짓고, 우리사회는 그것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여성조차 스스로의 편견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다. 이러한 연상을 바꾸기 위한 3·8 여성의 날 행사가 지난 8일(금) 마로니에 공원과 이와에서 곳곳에서 진행 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의 노동권 쟁취, 여성의 인권 유린, 성매매 근절 등을 외치며 여성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와에서부터 저녁부터 진행된 '나래의 퍼포먼스'와 '마음에 들지 않은 세상, 다 찢어 보자!!'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려 했다. 공연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며, 이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와 그들의 권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남성은 의리, 여성은 절개'라는 말처럼 우리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벽을 만들어 서로의 벽안에 가두려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본 여성들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여성들만의 외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성적 소수자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몫임을 강조하며...



3·8 여성의 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집회 모습. 여성 노동권 쟁취 성매매 근절 등을 외쳤다.

남성중심의 물길을 바꾸다



3.8 여성의 날 행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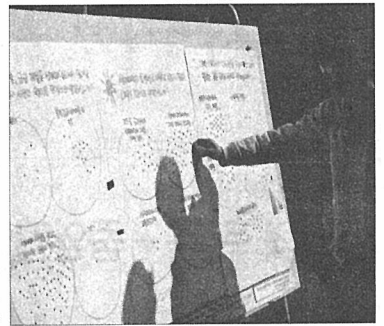
제작

김천열 사진부 기자

◀ 중앙대 안산배움터
충여학생회의
모노 드라마 장면.
어린 시절부터 직장에서
퇴출 당하기까지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동
에 고통받는
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중요 공원에서 학생들을 향해
격양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할아버지와 3·8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남학생의 모습



▶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매매와 관련 참여연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시민의 모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저희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1. 심리상담
 - 성격검사(MMPI, MBTI, 성격인간지, 자아개발검사 등): 자신의 성격 특성과 유형, 자신의 활동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공과 직업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검사: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적 흥미분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각종 투사 검사(로시, TAT, 그림검사 등):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써 전문가의 판단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상담
 - 학습, 성적, 진로, 대인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원 문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집단상담
 -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①자신을 표현하고 ②자신의 언행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며 ③나에게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자료실 운영: 유익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월 작성성서 일정

- 이론 캠프스**
- 1차: 3월 11일 화요일 오후 1:00 ~ 2:30
 - 2차: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30 ~ 12:00
 - 3차: 3월 25일 화요일 오후 3:00 ~ 4:30
- 워크숍 캠프스**
- 1차: 3월 11일 화요일 오후 2:30 ~ 4:00
 - 2차: 3월 27일 수요일 오후 3:00 ~ 5:00

* 커리큘럼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성문제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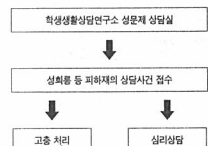
(Sexual Health Counseling Center)

저희 성문제 상담실은 학내의 성행위,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과 전문적인 임의상담을 제공합니다. 대학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며 나아가 학내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예민한 상담, 치료, 집단 프로그램, 자료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를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내가 경험한 것이 성행위, 성폭력인지 고민될 때
- 성행위 후 성병의 위험이 걱정되어 상담을 할 때
- 성관계를 갖는데 혼자 해결하기 힘이 들 때
- 성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충동조절, 우울감, 불안, 분노 등)가 있을 때
- 이성과의 심리적/정서적 갈등이 있을 때
- 성행위 및 성병예방과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
- 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읽고 싶을 때
- 성, 임신, 피임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성폭력 피해 시 이용 방법



성문제상담실은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있어서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주말 ▶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
상담신청 및 문의 ▶ 서울: ☎ accs@hufs.ac.kr ☎ 021961-4164
부산: ☎ accy@hufs.ac.kr ☎ 031330-4326

서울캠퍼스 예비군 전입 및 전출 신청

2002년 1학기 대학학원 예비군 전입 및 전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전입 신청
 - ① 대상자: 입학(일반, 편입학, 재입학), 복학, 복수전공, 본교학부에서 대학원 입학
 - ② 제출 서류: 예비군 방첩보류원서(비상계획관리서 비치)
 - 학내번호 신고서(학칙과 및 각 대학원 교칙과 별첨)
 - 등록금 납입 영수증(입학설 및 전적복학자 제외)
2. 전출 신청
 - 대상자: 휴학, 자퇴, 제적, 일반직장 예비군 전상자
 - 제출 서류: 학적번호 신고서(학칙과 및 각 대학원 교칙과 별첨)
3. 신청 기간(전입 및 전출)
 - 전입 신청: 등록 기간(수강 등록 포함)
 - 전출 신청: 휴학, 자퇴, 제적 일
 - 장소: 학생회관 건물내 비상계획관리실
4. 기타
 - 2002년도 전입학과 타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전입 신청전에 문의
 - 주소 변경자는 비상계획관리실에 변경 신청
 -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관 1층 학생회 및 비상계획관리실 전화로 961-41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2. 3. 2

대학직장 예비군 전 · 출입 신청

서울비상계획관리실에서는 2002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 · 출입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비군 전입신고 대상자는 학내번호 신고 및 등록금납입 영수증, 전출 신고서(휴학, 자퇴, 제적)는, 학적번호 신고 서울 직장 후 신청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전 · 출입 신청 안내 공문을 참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외국어연수생 모집 (아간 10주 과정)

1. 모집과정 및 학과
 - 일반인, 대학생과정 - 일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노어등 (총 24개 외국어)
2. 교육기간 및 시간

과정명	교육기간	수업시간	수업요일
대학생과정	2002. 4. 8 ~ 6. 14(10주)	17:40 ~ 19:30	주 4일
일반인과정		19:40 ~ 21:30	(월,목,금)
3. 신청인내
 - 원서교부 및 접수처: 2002. 3. 20(수)까지 전속은 외국어연수생가관 (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 수강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2매(한쪽 1매(한쪽소정양식)), 등록금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자국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
4. 수료권
 - 납부기간: 2002. 3. 4(월) ~ 2002. 3. 20(수), 외국어연수생가관 수납 및 은행
 - 입학제: 제1연수생(본원 소정양식), 사진 2매(한쪽 1매(한쪽소정양식)), 등록금
 - 등록금: 만 18세 이상 자국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
 - 등록금: 만 18세 이상 자국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
5. 반년성시합(Level Test)
 - 일시 및 장소: 2002. 3. 23(토) - 대학생 14:30, 일반인 15:3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가관
 - 발표: 2002. 4. 2(월) 11:00 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전화문의 가능)
 - * 각 학과 언어별로 Level Test (외국인 갈수록 1:1 인터뷰)
6. 기타
 - 교육기간 도중 전 및 시정정교육원(언어교육원) 등 교육시설 이용가능
 - 문의처: ☎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외국어를 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접수(한국인 및 해외교포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생가관

800 특 집

졸업식, 입학식 문제 되짚기

#1- 졸업식 전날 2월 26일(화)

“내일은 학교 봄빌것”

졸업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그의 친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학생회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김영현(상경·경영 98)군은 “졸업식 당일인 내일은

시일이 많아 아주 분발 것”이라며 미리 사진 촬영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졸업식 행사장인 노천극장도 협소하고 석·박사의 수상자 중심의 졸업식이어서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천극장 근처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이종경(동양·일본어 94)군은 “회사에 다녀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졸업식에 못가게 되었다”며 아쉬워했다.

#2- 졸업식 당일 2월 27일(수)

“학생은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다”

졸업식은 사람, 자동차, 꽃다발, 사진사를 몰고 다닌다. 교내에는 졸업생들과 그의 친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학내 공터에는 자동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들 대부분은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어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에 바빴다. 졸업생들은 “상투적이고 보여주기식이다”-홍현정(서양·서반어 96)

“학생들이 많은 반면 공간이 부족하다”-정희선(서양·독일어 98)이며 졸업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졸업식에 불참한 강유미(동양·중국어 98)장은 “상반는 사람

만 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대대행사를 마무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축사 나열식의 현재 졸업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내에 주차할 만한 곳은 모두 자동차로 빼곡이 차차 교문을 폐쇄하기도 했는데, 정문 수위실 직원 이영모씨는 “오늘 약 5,600대의 차량이 몰리는 등 혼잡이 극심해 부득이하게 교문을 잠겼다”라고 밝혔다.



단대, 과별로 하는 졸업식, 입학식 방안 제기돼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가리는데 부족한 졸업식, 대대행사의 첫발을 내딛음을 기념하기에 턱없는 입학식.

학교 주도의 행사보다는 과나 단대로 입학식, 졸업식을 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입학식, 졸업식 행사를 담당하는 김병진(총무과 행정주임)씨는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학교측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위 제안에 대해 “앞으로는 과나 단대로 학생과 교수가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가이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날짜를 달리한다면 강소문제와 교통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현이(동양·마인어 02)장은 “대부분의 행사를 단대로 하는데 입학식만이 인도 모두 모여서 하자”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대에서는 오히려 학교측에서 단대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종학생회에서 하향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입학식이 두 번 치러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서울배움터에서는 공간이 좁은 관계로 행사 주체 모두가 모이기 힘들고 학생 전체가 함께 하는 자리는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고려해 볼직 하다.

올해 졸업식과 내년 입학식이 어떤 형식으로 치러질지 그 결과가 사뭇 기대된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3- 서술배움터 입학식 3월 4일(월)

입학식과 수강신청

오전 10시 노천극장에서 열린 입학식은 처음부터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였다. 행사장 옆이나 운동장에는 과깃발을 앞세우고 수강신청을 위해 이동하는 몇몇 무리들이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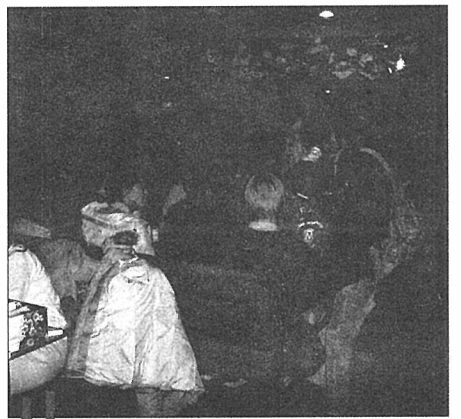
#4- 숭신배움터 입학식 3월 4일(월)

무산된 입학식

오후 2시에 열린 입학식은 식중 이사장의 퇴장으로 입학식이 중단되었다.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청목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사장이 이에 격분, 자진 퇴장을 하였다. 뒤따라서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퇴장하여 입학식이 무산되었다.

이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황당했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회가 정말 너무한다. 멀리서 왔는데...”며 아쉬워했고, 허성재(서유럽·독일어 02)군은 “학생회의 행동은 잘못된 것을 고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입학식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정작 중요한 세무기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술잔이 한 손에 든 뒤라 친구들의 얼굴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만나면 언제나 반기운 친구들의 얼굴도 있지만, 오늘은 후배들의 얼굴이 많이 보이는군요. 요즘은 선후배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오늘의 개강파티가 '함께' 하는 자리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ihufsan.com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 아이훌산

출동! 사전 점검속지 꺼리!

- 3월 11일 점검하는 ihufsan.com에 시도해도 많이 접속된다!
- 외대신문은 회고의 것도, 외대학보만의 것도 아닌, 외대인 모두의, 자신의 것임을 절대 깨치지 않는다!
- 감의실에서 있던 딸, 과·동아리 소식, 친구·연인(이)를 생긴 일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기는 뭐든지 토해낸다!
- 내가 쓴 기사가 외대학보(off-line)에 실리면 바로 학보사 행정실로 뛰어가서 원고료를 받는다!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 아이훌산